



수능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완벽한 국어 독해법”
{ 독서 - 화법 - 작문편 }



국 어 , 치 열 하 게 , 독 하 게 !

수능 기출은 풀이가 아닌, 분석의 대상이다!
더 이상의 지문-선지-유형 분석은 결코 없다!

국어,

하거

우리말로
포하거

저자 | 유대종
검토자 | 김재민
권예은

하거

part L0

이 책의 특징 및 공부법

06

01 이 책의 특징

02 이 책의 활용법

part L1

지문 독해법

08

01 거시 독해법(크게 보는 독해법)

14

- (1) 본론을 예측하는 힘: 대화제어(S3)
- (2) 중심을 파악하는 힘: 각 문단의 핵심 문장(MP)
- (3) 문단을 끌고 가는 힘: 지시어(V)

02 미시 독해법(작게, 세밀하게)

32

- (1) 명확하게 메모할 구문들 (대비, 대소, 사칙, 비례, 유관)
- (2) 기타 지문 독해에 용이한 구문들

part **L2**

선지 분석법

50

01 교체 56

- 1. 언어 변환
- 2. 뉘앙스 양질
- 3. '대우'와 '이'
- 4. 개연성 추론

02 탈락 [A+B → A] 145

03 축약 [문장 결합] 149

04 첨가 164

- (1) 의도 삽입
- (2) 신정보첨가, 없는 인과 만들기
- (3) 문제점과 해결책

part **L3**

유형 풀이법

188

01 찾기 189

- (1) 핵심 찾기
- (2) 서술상의 특징

02 추론하기 224

- (1) 정보찾기추론
- (2) 세부정보추론
- (3) 이유 추론
- (4) 전제 추론
- (5) 보기 없는 사례
- (6) 보기 추론

03 비판하기 307

지시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1)

유대중 선생님은 어떤 여자에게 600만 원의 샤넬 가방을 선물하였습니다. 이러한(V) 삽질이 남긴 것은 후회와 좌절의 눈물을 1년 동안 쏟게 만들었습니다.

(예1)에서, '이러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600만 원의 샤넬 가방을 선물한 행동이겠지요. 이렇게 이, 그, 저, 이런, 저런, 그런 등의 지시어가 나올 때, 그 곳에 v표시를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작업을 자주 하십시오. 다음은 2012 수능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예2)

<2012 수능>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이러한(v)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예2)는 2012 수능에 나왔던 사회 지문 첫 문단입니다. 여러분, 황사 아시죠? 황사같이 어떠한 주체의 행위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 혹은 손해를 주는 행위를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위 문단에서 '이러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행위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맨 처음 두 문장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손해를 주는 외부성 뿐만 아니라, 이익을 주는 외부성도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익을 주는 외부성이 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지 제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너무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다들 교육부 장관이나 높은 직위의 공직자가 되어서 국민을 잘 살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의도치 않게 국민들에게 이익을 준 행위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제조기라면 당연히 저는 더 많은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수업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사회 전체의 효율성에 비해 선생님의 명강의는 과소생산되고 있지요. 그렇기에 이익을 주는 외부성 역시, 사회 전체의 효율과는 다른 결과인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시어를 끌어왔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었겠지요.

이러한 지시어 표시는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과 함께 할 때 더 빛이 납니다!

수능 지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문제를 한 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MP(핵심 문장)을 찾는 접속사의 쓰임과 더불어,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짧은 예문입니다.

예3)

그러나(→) a. 많은 사람들은 매몰비용을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예를 들면, 공짜였다면 가지 않았을 농구 경기를 이미 지불한 티켓 값이 아까워서 경기 당일 눈보라를 무릅쓰고 경기장에 간다는 것이다. b. 이(V)와 같이(→) 한 번 투자한 시간, 돈, 또는 노력에 대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매몰비용효과'라 한다.

시험 문제 : ㉠의 원인은 무엇인지 쓰라.

자, 서술형인데 풀어보셨습니까? 핵심 문장은 '그러나'의 뒷부분과 '예를 들면'의 앞부분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몰비용을 과대평가하여 투자 지속 경향을 보인다는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는 앞의 농구의 사례이겠지요. 이러한 농구의 사례와 같이 투자의 지속 경향을 매몰비용효과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a문장과 b문장이 동일한 힘을 갖지요. 그렇다면 매몰비용효과의 원인은 b문장에서 우선 찾아보고 없다면, 동등한 힘을 지닌 a문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매몰비용효과의 원인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지시어(V)와 핵심 문장(MP)을 찾아내는 접속사가 활용되는, 마지막 예를 보시지요.

예4)

<2009 수능 변형> 그런데(→) a.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V) (→) b.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1. 위 글을 읽고 적절 유무를 판단하라.

㉡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o, x)

위 지문의 a문장부터 볼까요? a. 어떤 사람들은, 집단 수준이 인과가 개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로 '가령'이라고 하면서 예시가 문단 끝까지 나오지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처럼'은 앞의 문장에 등장한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의 별개성입니다. 접속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a문장에 등장하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들'과 b문장에 등장하는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동일한 대상입니다. 곧 a와 b문장을 결합하면 '집단 수준의 인과 개연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이며 이는 선지 ㉡번과 일치합니다. 정답은 o!

문단과 문단의 유기성을 강조하는 현행 수능의 추세로 볼 때, 지시어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이므로, 지시어에 V표시를 하고 그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적어보세요. 독해 능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 장에서 거시 독해법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거시 독해법이 본론을 예측하는 힘(S3), 핵심을 파악하는 힘(MP), 지시어를 통해 앞의 문단을 끌어오는 유기적인 힘(V)이라면 미시 독해법은 좀 더 섬세한 독해력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상관입니다.

1

명확하게 메모, 혹은 표시할 구문들

대비, 대소, 비례, 사칙, 유관

1 대비

수능 인문 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세계관과 인간관을 물어보는 철학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철학사는 의견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능 인문 문제는 주로 대립이 많습니다. 2014년도에는 심리철학에서 이원론과 일원론이 대비되었고, 2013년도에는 포퍼의 연역법과 귀납의 문제점이 대비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형이상학의 철학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대비되었고, 2011년도에는 자산의 사상과 노자의 사상이 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규정적 판단력과 칸트의 미적 공통감, 2014년도에는 베토벤과 슐레겐의 차이, 2013년도에는 만화와 영화의 차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속성까지 표시한다면 독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대종	강동원
키	158 △	185 ○
몸매	배대종 △	말근육 ○
얼굴	안습 △	존잘 ○

나를 희생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유대종은 158의 작은 키를 지닌 반면, 강동원은 185의 큰 키를 지녔다. 강동원은 존잘에 말근육이지만 유대종은 배만 나오고 안습의 얼굴이 지녔다.”

이럴 때, 유대종, 강동원 등의 주어뿐만 아니라, 속성에도 ○, △ 표시를 하시면 다시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수능에 대비는 어떠한 것들이 나왔을까요? 문제를 풀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2013수능)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의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1.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라.

- ①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o, x)
- ②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다.(o, x)
- ③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귀납의 결론은 확실히 참이다.(o, x)
- ④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이다.(o, x)

위 수능에 연역과 귀납의 속성들이 대비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지요.

연역 :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확인
 귀납 :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항상 참은 아님, 지식의 확장, 일반화

1번 선지에서 지식의 확장은 귀납의 특징이지요? 1번은 땡!, 2번 선지를 볼까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인 것은 연역입니다. 2번도 땡!, 3번 선지는 역시 결론이 항상 참은 아니라고 했으니 귀납의 특징이 아닙니다. 땡!, 새로운 지식은 연역이 아니라 귀납의 결과겠지요? 4번도 땡!

결국, X, X, X, X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속성을 정리해두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2014 수능도 보실까요?

〈2014 수능 B〉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투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위 지문에서 정신과 육체의 구분성과 관련성을 설명하는 이원론은, 정신과 육체를 별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 동일론의 주장이며, 이 동일론은 물질적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 옹호하는 주장입니다. 즉, 구분하려는 이원론의 입장과 대치가 되고 있지요. 문제는 이미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수능입니다.

〈2015 수능 B〉

신체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 ② 소아(△)의 형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o, x)
- ③ 소아(△)의 형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o, x)

자, 지문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아는 개별적 아, 자성을 지님, 상속성과 보편성이 결여되었네요. 대아는 반대로 사회 차원의 아이며, 자성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소아와 같지만, 대아는 소아와는 달리 상속성과 보편성도 지녔습니다.

우리는 선지에서 굳이 형성과 변성 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성향이 실현될 수도 없으므로, ②번과 ③번 선지는 모두 틀린 선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 지문에서도 이러한 대비는 존재합니다

〈2011 수능〉

㉠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축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① ㉠은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모두 중시한다.(o, x)

우리는 위 글의 체계 이론 미학을 내용이라는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형식이라는 자기 연관 체계와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반면 전통 철학 미학은 내용도 중시하고, 그것의 형상화라는 형식적 측면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의 설명은 맞습니다.

2

대소(크다, 작다, 넓다, 좁다, 가깝다, 멀다 등)

“키가 클수록 인기가 많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학생들은 저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림 386cm랑 사귀든가!

이런 문장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클수록(↑) 인기가(□) 많다(↑)”, 혹은 이 문장은 이 문장 역시 내포합니다. <키(□)가 작을수록(↓) 인기가 적다(↓)> 특히 과학이나 경제에서 숫자, 수치와 관련된 표현들은 이렇게 반대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한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장이 참이라면, 키와 인기는 비례 관계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2 수능〉

이상적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한다고 해 보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한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1. 위 지문을 읽고 적절 유무를 파악하라.

- ①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o, x)
- ②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전자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를 ㉠보다 줄일 수 있겠군.(o, x)

위 지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지요.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 → 전자의 운동량 적게(↓) 교란 → 전자의 운동량 측정 가능
 <장파장(↑)> → 전자의 위치 측정 불가능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운동량과 파장은 반비례 관계(즉, 운동량이 작으면 파장이 길다.)라는 것이며, 광양자의 운동량과 전자의 운동량은 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치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리합니다. (운동량이 큰 광양자는 전자의 운동량을 크게 교란하여 전자의 운동량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이것은 단파장이므로 위치 측정은 가능하게 한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 → 전자의 운동량 크게(↑) 교란 → 전자의 운동량 측정 불가능
 <장(↓)파장> → 전자의 위치 측정 가능

1번 선지를 보시죠.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해야 하고 그렇다면 광양자의 운동량이 작아야 합니다. 전자랑 광양자의 운동량을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고, 광양자의 운동량은 커서도 안됩니다. 1번은 X!, 2번 역시 장파장이므로 전자의 위치 측정이 불능이므로 측정 오차 범위는 늘어납니다. 정답은 X!

3 비례(~수률)

‘운동량 = 질량 x 속도’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변인은 제한하고, 질량을 더 늘린다면 운동량은 어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질량과 운동량은 비례) 혹은, 운동량을 고정시켰을 때, 다른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질량을 늘리면 속도는 감소하겠죠?(질량과 속도는 반비례) 이렇게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수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문단을 보시죠!

<2014 수능>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o, x)

둘레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집니다. 자전주기는 어디를 가나 동일하고요. 자전 속력은 적도가 제일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지는군요. 그렇다면 저위도로 갈수록 속력은 빨라지겠네요. 남위 50도는 40도에 비해 고위도이니 속력이 더 느리겠지요. 정답은 x!

다음, 2015 수능을 볼까요?

〈2015 수능 변형〉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의 공전 궤도 이심률 : 0.055, 지구의 공전 궤도 이심률 : 0.017)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o, x)

여기서 비례는 앞에서 배운 대소와 같이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시지요!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을 작아진다.(↓)

앞에서 배웠듯 반대의 개념도 가능하겠지요?

즉, <두 초점이 멀수록 이심률이 크다>. <두 초점이 멀수록 원이 아니다.>

자, 지문의 괄호를 보면 달은 지구보다 이심률이 크죠? 그럼 두 초점이 멀겠고, 원 모양에 가깝지도 않겠지요? 이렇듯, 수치 혹은 대소와 관련된 표현들은 ‘역’과 ‘이’가 성립합니다. 역과 이는 이런 것입니다.

특정 명제 : $(A \rightarrow B)$

역 : $(B \rightarrow A)$

이 : $(\sim A \rightarrow \sim B)$

대우 : $(\sim B \rightarrow \sim A)$

그렇기에, 수치 표현이 나올 때는, ‘이심률이 작아지면, 두 초점이 가깝겠군.’, ‘두 초점이 클수록, 이심률은 커지겠군.’ 등의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엄밀성을 요하는 인문 철학 지문에서는 역, 이는 합부로 쓰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크더라.”라는 문장이 참이라고 해서, 키가 큰 사람은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수치 표현이 등장할 때(과학, 기술, 경제 지문 등에) 이런 역, 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인과 관계는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것을 도치하면 큰일납니다. 화장실을 가서 배가 아픕니다???? 그럼 우린 화장실만 들어가면 바지를 내려야 합니다.

4 사칙(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사칙은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등의 계산을 의미합니다. 2011 수능을 같이 보시지요.

(2011 수능)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중략)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o, x)

순수익은 무엇일까요?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입니다. 아하! 순수익을 크게 만들려면, 채권의 매입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겠네요?

지급 불능 위험은 채권의 매입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채권의 현재 가치 - 채권의 매입 가격 = 순수익)에서 매입 가격을 다운시켜 순수익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4번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O! 이렇게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꽤나 중요하다는 것, 꼭 염두해 두세요!

(2012 수능)

'전자를 보는 것'은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에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③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o, x)

(운동량 = 질량 X 속도)입니다. 자, 이제 적절한 정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질량이 통제될 때,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량도 증가합니다. 런닝 머신을 할 때 여러분의 질량은 고정이지 않아요. 근데 속도를 올리면 운동량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결국 3번 선지는 맞는 정보입니다. 정답은 O!

5 유관(관련성 유무)

유관은 다른 말로 상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남자 볼 때 몸매를 보게 되더라.” 몸매가 근육질일수록 너무 멋진 거 있지?”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남자의 몸매는 그 사람의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겠지요?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관성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4 수능〉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홀원소로 존재하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든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o, x)

자, 여러분 밝은 선의 위치는 온도에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당연히 밝은 선의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정답은 O!

〈2013 수능〉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③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o, x)

인력에 의해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합니다. 즉, 거리가 멀어지면 분자 간의 상호 작용 역시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자 간 상호작용은 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③번선지는 틀린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4 수능〉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중략)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o, x)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o, x)

이 문제 역시 지구의 자전 주기가 위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 선지의 정답은 o! 반면 5번 선지는 전향력이 이동 속력과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지문의 마지막에서 전향력은 물체 이동 속력과 유관합니다. 정답은 o!

〈초간단 정리〉

메모하거나 표시해야 할 것들 : 대비, 대소, 비례, 사칙, 유관

2 기타 지문 독해에 용이한 구문들

A. "looks like but→x"

선생님이 키 높이가 구두를 신었을 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와~ 키가 커 보이시네요." '~처럼 보인다'는 것은 물론 문맥상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내포할 때가 많습니다. 2015 수능을 보세요!

(2015 수능)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신채호는 그렇다면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현대 사회는 왕이 사라지고 코드화의 중심이 없어짐으로써 다양한 욕망이 자유롭게 충족될 수 있는 탈코드화 사회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탈코드화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2013 수능)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①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연역은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일 뿐(looks like) 실제로 확장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①번 선지는 잘못된 정보이겠지요.

B. '수식+피수식'

'잘생긴 강동원'이라는 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럴때 '잘생긴'을 수식, '강동원'은 피수식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강동원은 잘생겼다." 이런 분석이 왜 중요한지 보시지요!

(2013 수능)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위 지문을 조금 변형해보자면, “연역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이다.”입니다.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빨리 읽다보면 이렇게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앞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수능모의고사〉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 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동정의 연민’이 선지에서 ‘동정으로 끝나는 연민’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2010 수능〉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리와 사리의 특징을 찾아볼까요? 지문을 통해 ‘물리는 일정한 원리’이며, 사리는 인간 세계의 원리라서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 수능〉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변명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자, 2015 수능입니다. ‘비아 속의 아’는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겠네요. 같은 의미의 문장이 아래 밑줄 친 부분에 등장합니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 비아 속의 아” 이것을 이해해야 다음 선지가 풀립니다.

③ 신채호가 신국면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어인 조선 민족이 서태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전문이 아니기에 앞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쉽게, 비아와의 연대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와 연대해야 함을 알 수 있지요?

이렇듯 ‘수식 + 피수식’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처럼 해석하는 것은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준답니다.

C. 필요조건

필요조건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바로 구름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커피를 만들려면 원두가 있어야 하겠지요? 여기서 비, 원두와 같은 것들을 필요조건이라 합니다.

필요 조건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이면 B이다.

A하려면 B해야 한다.

B를 통해(B함으로써) A할 수 있다.

B 없이는 A도 없다.

이러한 문장에서 B는 모두 필요조건입니다.

2014 수능 지문에서는 이렇게 필요조건이 등장하였습니다.

<2014 수능>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O)

2015 수능 지문도 역시 필요조건이 등장합니다.

<2015 수능>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자성이 항성과 변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중 하나의 요소가 사라진다면 자성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고로, 항성과 변성은 자성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또한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깨진다면 상속성 혹은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겠지요.

D. 기본적 논리력 (연역 추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무조건적으로 참인 것을 우리는 연역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연역 추론을 이해하는 것은 논리력을 증강시키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연역 추론은 우선 4가지 정도입니다.

① $A \rightarrow B$ (유대중은 키가 작으면 죽는다.)

A (유대중은 키가 작다.)

A (유대중은 죽는다)

② $A \rightarrow B$ (키가 크면 결혼을 할 수 있다.)

$\sim B$ (유대중은 결혼을 못했다.)

$\sim A$ (유대중은 키가 크지 않다.)

③ $A \text{ or } B$ (158cm랑 사귄래, 295cm랑 사귄래?)

$\sim A$ (158cm는 버려!)

B (그럼 295cm랑 사귀어야지.)

④ $A \rightarrow B$ (키가 작으면 인기가 없다.)

$B \rightarrow C$ (인기가 없으면 죽어야지.)

$A \rightarrow C$ (키가 작으면 죽어야지.)

위 논증들은 수능에 제일 많이 쓰이는 논증들입니다. 외워두세요!

표시할 구문들 : 초간단 정리 : 대립, 대소, 비례, 사칙, 유관

알아두면 편한 구문들 : LOOKS LIKE, 수식(V) + 피수식(S) , 필요조건, 연역추론

L1 - 곱씹기

〈초간단 정리1〉

- A. S3란?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논제[대화제어]'이다.
 B. S3를 찾는 법 : 서론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시작 부분, 혹은 본문의 개념화된 흐름
 C. S3는 왜 알아야 하는가? (1) 글 전체의 내용을 예측하고 조망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2) 표제어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초간단 정리2〉

- MP - 접속사와 구절 별 힘의 관계를 통해, 핵심 문장 찾아 밑줄을 친다.
 A.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예를 들어(가령), 왜냐하면, 반면)
 B. 구절 간의 힘의 관계 (종속절 <주절, NOT A BUT B, 한계<해결, 자문 <자답, 유추 전 <유추 후, ST(통념, 일반인의 생각)<IT(필자의 견해))

〈초간단 정리3〉

메모하거나 표시해야 할 것들 A. 대비, B. 대소, C. 비례, D. 사칙, E. 유관

〈초간단 정리4〉

알아두면 편한 구문들 : A. LOOKS LIKE, B. 수식(V) +피수식(S), C. 필요조건, D. 연역추론

2 뉘앙스 양질

선지 구성의 원리 교체 중 이 파트에서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일부러 양을 혼동시키거나, 질적인 범주를 다르게 하는 방식들입니다. 지문에서는 특정 대상이 2개인데, 선지는 그 대상을 3개라고 하거나, 해당 범주를 미묘하게 바꾸는 이것들은 특정한 어감, 즉 뉘앙스를 결정하기 때문이 이러한 구성 원리를 뉘앙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문과 선지의 뉘앙스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함께 확인하여 봅시다.



(ALL vs SOME) 정언

“모든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모든’입니다. 만약 어딘가에 영어를 못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 법칙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어떤 사람은 국어를 못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국어를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성립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ALL과 SOME에 대해 다른 것을 정언 명제라고 하는데 ALL(모든)인지, SOME(경우, 어떤)인지 파악하는 것은 수능 국어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2005 수능)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④ 신문 후보 지지 선언이 선거 결과와 항상 관련 없는 것은 아니었다.(o, x)

4번 선지의 “선거 결과와 항상 관련 없는 것은 아니다.”는, ‘관련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SOME!)’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대응되는 지문은 다음 부분입니다. 지문에서는 신문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실제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또한, 1958년 선거에서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영향을 준 사건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정답은 O입니다!**

(2009 수능)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o, x)

자, 지문에서 드러나는 A의 병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는 유전, 환경, 개인의 요인, 그리고 그 요인들의 우연-복합적 결합도 가능합니다. 즉 '언제나', '항상' 하나의 원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X!**

(2012 수능)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o, x)

자 함께 지문을 잠시 보시지요. 외부성이란 이익이나 손해를 제3자에게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의도 없어요.(의도적으로 폐수를 흘리면 그건 범죄겠죠. 2문단 처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1문단의 처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외부성은 '제 3자에서 이익 혹은 손해를 주는' 외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를 주는 외부성도 비효율성을, 이익을 주는 외부성도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문의 내용과는 달리 2번 선지는 (무조건, 모든 경우에) 이익을 주는 외부성에서는 (무조건) 비효율성은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2번 선지는 지문에 위배되는 서술이 됩니다. 결국 x입니다!

(2011 수능)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뿔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뿔'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뿔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o, x)

자, 5번 선지는 “언어 변화가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대응하는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디쥐가 ‘두디지’로 어형이 변해서 이것의 합성어 여부를 알아차리기(파악하기)어렵다.” ‘숫돌’ 또한 형태 변화, 동사 소멸 등으로 말미암아, 단어를 딱 보고 이게 어떠한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두 개의 케이스가 나왔으니 당연히 5번 선지는 정답입니다. **답은 오!**

<2007 수능>

한편, 기술이 진보한 결과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장한 기술 영역은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 기술에서 비롯된 정보 기술 산업은 이미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등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오, 일치하지 않으면 x

- ④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o, x)

4번 역시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경우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지요. 지문에서는 정보 기술로 비롯된 정보 기술 산업의 케이스가 지문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의 정답은 오!**

<2012 수능>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A]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글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B]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C] 구두는 지금 황혼
 뒤통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D]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B]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냐

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6.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④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o, x)

자, 갑자기 웬 문학이라면서 당황하셨죠? 사실, 문학에도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선지 구성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뉘앙스 양질 정언(all or some)) 자, 4번 선지를 보세요. 4번 선지처럼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모든(all) 소재에는 어조의 변화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가 없겠지요? 진달래, 보리, 호랑나비, 종달새가 나올 때마다 어조(어투나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답은 X!**

(2015 수능)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 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 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恆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7.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면 ○, 아니면 ×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자, 어렵지만 잘 보셨지요? 혹시라도 많이 어려우시다면 개념들의 관계를 쪽 한 번 메모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문을 통해 우리는 소아와 대아 모두 자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속성과 보편성을 모두(all) 갖느냐? 지문을 볼까요? 이 지문에서는 분명히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그러한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 선지는 X입니다!**

8.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 ×를 하라.

(2002 수능)

(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말들은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그것을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바꾸려는 대중적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재료로 쓰인다.

- 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 말은 고유어로만 구성된다.(○, ×)

(나)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 오던 '벤또'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심지어 '덮밥'은 국어에서는 매우 흔하지 않은 조어(造語)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써 오던 '뚝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말들이 성공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벤또, 뚝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조어 방식에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라도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
- ④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

(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센누끼’는, 광복 후 오랫동안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이는, 새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하다.

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o, x)

1번 선지부터 보실까요? 1번 선지처럼, ‘자연 발생적인 새 말의 고유어로만 쓰인다는’ 것은 모든 자연발생적 새 말은 모두(all) 고유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모두 자연발생적인 새 말의 재료로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선지는 x!

3번 선지입니다.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즉,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무조건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나) 문단 처음에 새 말로 바꾸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답은 X!

4번 선지는 다음과 같았지요?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반대의 사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지문 전반부에서는 ‘덮밥’이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4번 선지는 x입니다.

5번 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연발생의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하나라도 대체하면 됩니다. 관련된 (다) 지문에서는, 마개뽑이라는 권장 단어 대신, 자연 발생적인 ‘따개’로 대체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 발생적인 새말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선지와 지문이 부합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2009 수능)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9.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하라.

③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소 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겠어.(o, x)

3번 선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모든 것들에 사용하는 제거법은 모두 화소 간 중복 제거여야 한다.”

그런데 지문에서도 동영상 압축은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압축에는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즉, 화소 간 중복만이 화질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면 간, 화소 간, 통계적 모두 화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3번 선지는 X입니다.

(2002 수능)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①치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치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 하지 않으면 x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o, x)

이 선지에 많이들 o라는 답을 쓰셨을 겁니다. 2번 선지의 의미대로라면, 기업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무조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아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문은 다음입니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상충할 때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지, 언제나 단기적 손해를 감수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x!**

(2015 수능)

[A]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11.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아니면 x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o, x)

네, 지문을 보니 규정적 판단은 ‘개별 대상 or 모든 대상을 묶은 단위’에서 모두 이루어진답니다.(SOME도 되고 ALL도 되고) 하지만 취미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SOME)만 된답니다. 즉 모든 예술이라는 용어는 모든 대상을 묶은 단위이며, 규정적 판단에 속하므로 취미판단이 될 수 없지요. **정답은 O!**

(2015수능작문)

[수업 상황]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가)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를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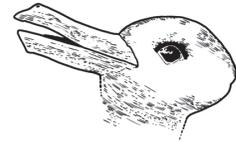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을 것.

12.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리 토끼' 그림
-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
-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 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사고를 해 왔던 스스로를 반성했다.
-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 얼마 전 모둠 활동 중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워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 선입견 없이 다시 보니 토끼로도 보여 신기했다. 학문 탐구에서 대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⑤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학생 1의 작문 과제에서 필요한 조건은, 메모를 모두 반영하고, 비유를 활용해야 합니다. 메모를 모두!(all) 반영해야 합니다. 즉, 오리 그림, 선입견의 위험성,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선지 4번은 선입견의 위험성이 없고요, 선지 3번은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이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참고 : 이런 작문의 유형(조건 제시)의 문제는, 사실 필요조건이 결합된 것입니다.

즉 "조건1-메모 내용의 반영, 조건2-비유를 활용할 것!"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13. 다음은 문화재 답사기를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012 수능)

〈보 기〉

- ‘내소사의 역사 소개 → 대웅보전의 꽃살문 묘사(전체에서 부분으로) → 꽃살문의 의의 서술 → 감상’의 순서로 전개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심 소재의 사진을 첨부
-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쓰되,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

답사 둘째 날, 꽃살문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로 향했다. 경내에 들어서니 유서 깊은 대웅보전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꽃살문에서 꽃문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각 꽃살문에는 연꽃, 모란, 국화 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꽃잎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특히 왼쪽에서 셋째, 여섯째 문은 다른 문들과 꽃문양의 배치가 달라 눈길을 끌었다.

㉡ 아래쪽에는 꽃봉오리가, 위쪽에는 활짝 핀 꽃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보면 대웅보전에는 가운데 칸에 네 짝, 좌우 칸에 각각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모든 문의 문살은 빗살이 교차된 모양이며, 각 교차점 위에 꽃들이 얹혀 있는 듯했다. 꽃살문은 전체적으로 나무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소박하고 단아해 보였다.

불가에서 꽃은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한다. 특히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새긴 꽃살문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 주는 것같았다. ㉢더구나 모란의 꽃말은 ‘부귀’라고 한다. 꽃살문은 문의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 장식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13.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 유무를 판단하라.

- ① 내소사의 꽃살문은 고운 자태로 마음속에 품은 뜻을 내게 말해 주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문화재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o, x)
- ②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은 모두 살아 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던데,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자주 해야겠다.(o, x)

자, 여러분 역시 문두를 잘 보세요. 우리는 “글쓰기 계획에 따라”야만 합니다. 글쓰기 계획 중 조건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쓸 것, 관용 표현, 의인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선지를 보세요. 2번 선지는 관용 표현도, 의인도 있지만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쓴 것이 아닙니다. 꽃문양을 보면, 자연 애호라니요! 체험한 내용과 감상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1번은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03 추약 (문장 결합)

추약이란? 앞에서 언급하여 드렸듯이, 지문의 두 개의 문장, 혹은 그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선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문장과 부수 문장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선지를 구성하기도 하고,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선지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세부 정보 문제로서 ㉠과 ㉡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역시 문장들의 결합이며,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것을 묻는 문항 역시 지문의 문장과 보기의 문장의 결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문제가 고난이도일수록 문장 결합이 잦으며, 문단 간 유기성이 강조되는 현행 수능의 경향(2014~2015)으로 볼 때, 문장 결합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문장 결합은 특히 지시어와 논리력을 함께 길러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봅시다!

(2013 수능)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꼭)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o, x)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o, x)

②번과 ③번 선지의 문장은 모두, 위 지문의 두 문장이 결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 그럼에도 국가가 이(V) 제도들(사적 연금, 공공부조) 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제도들에서 이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사적 연금, 공공부조입니다. 이것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니, 당연히 ②번 선지는 지문과 잘 대응된 선지입니다. ③번은요? 공공부조와 공적 연금제도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니 개연성 있게 추론해 보면, 공공부조를 폐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번 선지의 답은 o, 3번 선지의 답은 x입니다!

(2014 수능)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o, x)

자, 다 풀어보셨나요? 3번 선지는 지문의 첫 문단 첫 번째 문장의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라는 절과,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문장을 연결해야 하는 선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우리는 ‘평행론이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 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평행론의 견해를 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실제로 평행론 자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육체적 사건, 정신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문장 결합이 한 문단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의 답은 o입니다!**

(2013 수능)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V 인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⑤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o, x)

이 선지는 뒤양스 유무에서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결합이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문의 첫 문장인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라는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에 처음인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라는 절을 합쳐 보세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무시된답니다. 인력이 거리로 인해 무시가 될 정도로 약해진다면,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 분자 간 상호작용은 당연히 약해지겠지요. 아, 그렇다면 거리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얘기한 선지와 상관있다고 얘기한 지문은 서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로, **답은 바로 X입니다.**

(2013 수능)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 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 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V삽입 = 아무리 관찰하여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발견될 수 있는 이러한)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o, 그렇지 않다면 x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o, x) <문장 결합>

5번 선지와 대응하는 지문의 문장은 2문단의 ‘그러나’ 이후입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문장에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한 까마귀들 중 검지 않은 까마귀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의 없는 새로운 지식’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요?(추론을 통한 어휘 변환) 그 다음 문단에서도 “포퍼는 (이러한 까마귀 이야기와 관련된)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5번 선지는 맞는 정보입니다. **답은 O!**

(2009 수능)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등도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물결 자국이나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건열: 건조한 대기로 인해 땅 표면이 말라서 갈라진 것.

〈보기〉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 위 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보 기〉

The diagram shows a fossil site with several tracks. Track A is a long, narrow track with small, circular indentations. Track B is a shorter, wider track with larger, circular indentations. Track C is a shorter, wider track with larger, circular indentations. Track D is a long, narrow track with small, circular indentations. There are also tracks labeled '새의 발자국' (bird tracks) and '건열' (cracks). The tracks are labeled A, B, C, and D.

[조사 결과]

- ㄱ. 발자국 길이-A: 평균 25cm, D: 평균 25cm
- ㄴ. 뒷발자국 길이-B: 평균 30cm, C: 평균 36cm
- ㄷ. 보폭 거리-A: 평균 230cm, D: 평균 150cm
- ㄹ. 발자국 모양-A와 D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이며,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깊.
- ㅁ.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건열, 새의 발자국이 발견됨.

②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을 것이다.(o, x)

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맨 뒤에 용어 설명 부분, 즉 날개 부분을 읽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날개 부분과 결합한 선지도 자주 등장하니까요. 〈보기〉에 지층을 보니 건열이 있네요. 건열은 ‘건조한 대기로 땅이 갈라진 것’이라고 지문의 날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겠지요? 결국 이 문제는 〈보기〉와 지문을 결합하여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O!**

(2006 수능)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닥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가 용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② 태양 빛은 이글루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o, x)
- ⑤ 이글루의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방출되는 복사파를 차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o, x)

2번 선지와 대응하는 지문은 위 글에 첫 문단 맨 처음입니다. 보시지요.

- a.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 b.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 c.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a문장과 b문장, c문장을 결합하면 어렵지 않게 태양 빛을 통해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이글루가 지면보다 많기 때문에 이글루가 지면보다 더 따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뉘앙스 양질 유무 파트(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로 따져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문장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축약[문장 결합]파트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아무튼 2번 선지는 o!

자, 한편, 5번 선지와 대응하는 지문은 첫 문단 마지막입니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온실 효과와 이글루는 모두 복사파를 유리와 얼음으로 각각 차단합니다. 5번 선지도 정답은 o!

(2011 수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포인터:	저장소	포인터:	저장소
0000:	산 이름	0000:	산 이름 다음 포인터
1000:	백두	1000:	백두 1008
1001:	설악	1002:	㉠ ㉡
1002:	지리	1004:	지리 1006
1003:	한라	1006:	한라 ----
1004:		1008:	설악 ㉢1004
⋮		⋮	

<그림 1> 배열 <그림 2> 연결 리스트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은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에 '소백'을 쓰고 ㉡와 ㉢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 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한다.(o, x)

1번 선지와 대응되는 부분은 2문단에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저장된)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을 통해 우리는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건 배열만의 특징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2문단의 배열 파트에서는 물론이고, 3문단의 연결리스트에서도 1번 선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문단을 보실까요?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연결리스트에서도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려면 포인터를 사용해야겠지요? 1번 선지는 결국 이!

(2003 수능)

하사(下士)*는 오곡을 보면 중국에도 있는지를 묻고, 중사(中士)*는 중국 문장이 우리 나라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상사(上士)*는 중국에는 이학(理學)이 없다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중국에는 배울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큰 천하에 무엇인들 없겠는가? 내가 지나가 본 곳은 중국의 한 모퉁이인 유주(幽州), 연주(燕州)이고, 만난 사람도 문인 몇 사람일 뿐이니 도(道)를 물려받은 큰 선비는 실상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못했고 천하의 지역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는 뛰어난 학자들과 걸출한 문인들이 있는데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학문과 문학을 볼 것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얼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대저 서적에 기재된 것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의미가 무궁하다. 그런 까닭에 중국 서적을 읽지 않는 자는 스스로 금을 긋는 것이고, 중국을 다 오랑캐라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 비록 육상산이나 왕양명 같은 사람들의 학설이 있다고 해도 주자학의 적통(嫡統)은 제대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는 사람마다 주자의 학설을 말할 뿐이며 나라 안에 이단이 없으므로 사대부는 감히 육상산이나 왕양명의 학설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도가 하나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는가? 과거(科擧)로 몰아대고 풍기(風氣)로 구속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손마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이 중국의 큰 규모와 같게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무릇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예를 다 발휘해도 중국의 물건 하나에 불과할 터이니 서로 비교하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알지 못함이 심한 자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면서,

“그대는 중국 비단을 못 보았나? 꽃과 새, 용 따위의 무늬가 번쩍번쩍하여 살아 있는 듯하며, 가까이 보면 기뻐하는 듯, 슬퍼하는 듯, 모습이 금세 달라진다.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직조 기술이 과연 여기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 하는바, 우리 나라의 면포가 날과 씨만으로 짜여 있는 것과 어떠한가? 중국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은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며, 짙은 금빛과 채색 단장으로 꾸몄고, 통행하는 것은 수레이고,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뿐이다. 그 도읍, 성곽, 음악의 변화함이며, 무지개다리, 푸른 숲 속에 은은하게 오가는 풍경은 완전히 그림과 같다. 부인네 머리 모습과 긴 저고리는 모두 옛날 제도 그대로이며 멀리서 바라보면 몸매가 날씬하여 우리 나라 부인네의 짧은 저고리와 폭넓은 치마가 아직도 몽고 제도를 이어받은 것과 같지 않다.”

하였더니 모두 허황하게 여겨 믿지 않았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아주 다르다는 듯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면서, “호국(胡國)을 우단(右袒)**한다.”라는 것이었다.

아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유도(儒道)를 밝히고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 나라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자는 “의리를 아는 사람이 많기를 원할 뿐이다.” 하였는데, 그러므로 나도 이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제가, 북학의 -

*하사·중사·상사 : 선비를 상·중·하로 나누어 표현한 것.

**우단 : 한쪽 편을 들.

8. 윗글의 필자가 당시 우리 나라 사정에 대해 지적인 내용으로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

② 과거 시험에서 왕양명의 학설을 주장하면 불이익을 받는다.(o, x)

④ 지식인들이 현재의 연경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o, x)

자, 조금 어휘가 어렵지요? 1번 선지에 대응하는 부분은 4문단에서 찾을 수 있네요.

우리 나라는 사람마다 주자의 학설을 말할 뿐이며 나라 안에 이단이 없으므로 사대부는 감히 육상산이나 왕양명의 학설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도가 하나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는가? (육장산과 왕양명의 학설들을) 과거(科擧)로 몰아대고 풍기(風氣)로 구속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손마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장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시험에서 왕양명의 학설을 말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겠죠? 즉, 2번 선지는 o입니다!

4번 선지와 대응하는 부분은 다음 두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을 많이들 못 찾으시더라고요.

내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면서, + (마지막 문단에) 아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유도(儒道)를 밝히고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 나라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필자에게 찾아와 중국에 대해 묻는 사람들은 연경 상황에 흥미를 갖지요? 그렇다면 답은 무조건 o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거지가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5살 아기가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즉, 4번 선지의 말처럼 이들이 지식인인 것은 어찌 알죠? 이것은 마지막 문단에 등장하듯 필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유학을 밝히고, 백성을 다스릴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선지의 정답은 x!

(2012 수능)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o, x)

3번 선지와 대응하는 문장들을 봅시다. 1문단에서 전통적 경제학은 비효율성의 해결로 보조금과 벌금을 생각한다고 첫 문단 처음에 나오지요? 또 하나 2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조금 혹은 벌금과 같은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3번 선지는 o!

10. 흐름을 따라가며 적절 유무를 판단하시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 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② 정서론과 음형론은 성악을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나 점차 기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o, x)

자, 차근차근 봅시다. 우선, 2번 선지와 대응되는 지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2번 선지의 정답은 O!

→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V = 정서론, 음형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부어마이스터는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음형론의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 주었다.(o, x)

3번 선지와 대응되는 지문은 역시 아래에 있고요. 3번 선지 역시 정답은 O입니다!

→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음형론 문단이니, 음형론 관련 음악가이겠지요? 거기다가 바로크 초기!)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음형론의 입장을 지닌)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에 주목)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부어마이스터가 실제로 이런 연주들에 주목함, 즉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음)

(2014수능)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 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 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⑤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o, x)

자, 5번 선지는 지문의 이곳과 관련이 있네요.

→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 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우리 장난 식으로 이런 언어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도 예견되었던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실제로 한슬리크를 통해 일어난 것이지요. 그 한슬리크는 음들의 순수한 결합, 즉 형식적 요소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선지 역시 정답은 O!

자, 여러분!

지금껏 선지 구성 원리 중 축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문장 결합은, 좀 더 논리적인 원리가 들어 있는 결합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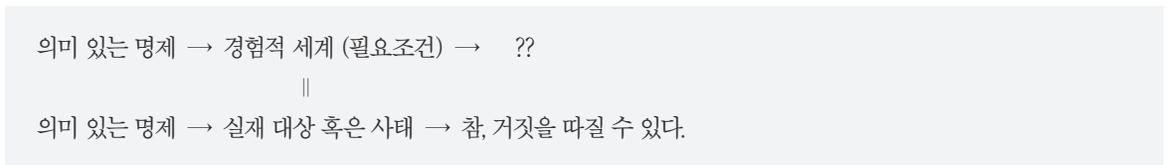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o, x)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o, x)

자, 2번 선지와 대응하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문단에 보시면,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한편, 2문단에는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두 문장을 결합한다면, 2번 선지처럼 <논고>에 있는 그림 이론이 논리실증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2번 선지는 o!**

4번 선지가 조금 어렵지요? 4번 선지와 대응하는 문장은 다음 두 문장입니다. 3문단 맨 마지막에,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문맥상 경험적 세계는 실재하는 대상 혹은 사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결국,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겠지요. **4번 선지는 결국 x!**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참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으니까요.(사실 이 4번 선지는 뉘앙스 양질 범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15수능)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

2.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 ③ 체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섭취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되었군.(o, x)

3번 선지는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첫 문단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 문장은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겠지요?

*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 세포 내 합성(A) or 음식 섭취한 단백질로 얻음(B) or 체내 단백질 분해 (C)
즉, A or B or C

그런데 지문의 그 다음 문장을 보시지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위 문장에 따르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 (A)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결국 다시 논리적으로 구성해보지요.

A or B or C
~A

B or C (필수아미노산은, 음식 섭취한 단백질로 얻거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 생긴 것)

결국 3번 선지는 O입니다!

6 보기 추론

보기 관점(비판)

풀이법

- 첫째,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지 앞으로, 평가하는 주체를 선지 뒤로 배치합니다.
 - 둘째, <보기>를 먼저 읽어서, 보기의 핵심 주장을 찾습니다.
 - 셋째, 위 글의 전체 혹은 부분의 주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 (tip1. 보기의 주로 뒤에 핵심 주장이 있다)
 (tip2. 사실 <보기> 관점 중 적절' 유형은 '보기'의 핵심만 잘 읽어도 사실 답을 90%이상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1 수능>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 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위상(位相)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 정: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1.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 ② 자연이 인간의 회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 이 문제의 문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다면 선지 구성은, 자산이 한 일이 선지 앞에, 노자가 한 일은 선지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가령, 선생님 입장에서 김태희를 평가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김태희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되죠. “김태희 얼굴, 나는 맘에 안들더라” 평가 대상을 앞으로 놓고, 그것에 대한 내 입장을 뒤에다 배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를 이렇게 끊어볼 수가 있겠지요?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자산) /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노자)
- ② 자연이 인간의 회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산) /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노자)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자산) /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노자)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자산) / 사회 발전을 극대화할 것이다.(노자)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자산) /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노자)

자, 그럼 <보기>의 핵심 주장도 살펴볼게요. 보기 함께 보시죠.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노자의 핵심 주장은 법률, 제도는 허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산이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아, 자산 너 허위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선지가 사실 커다란 함정이었습니다. 자연에 의지에 반한다고 노자가 말하려면, 자연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자 입장이 지녀야 할 ‘전제’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보면 자연은 무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 선지는 답이 아닙니다!

<2008 6월 모평>

-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켜므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고** 관대하며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기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왜냐하면

㉠

(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갑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 ①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내야 한다.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
- ③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얼마나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품성이나 자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 ④ 훈련의 결과 언제나 탁월한 성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탁월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 ⑤ 훈련으로 얻어지는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은 대개 이성적 성찰을 거치지 않으므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문두의 스타일을 보아하니,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아 그거 이러한 거야.”라고 <보기>가 위 글을 평가하겠지요? 보기부터 봅시다. <보기>의 후반부가 주로 핵심이라고 했죠? “성향, 감정등은 도덕이 아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이라는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보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향성은 탁월함의 성향에 기대는 것이므로 도덕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하사(下士)*는 오곡을 보면 중국에도 있는지를 묻고, 중사(中士)*는 중국 문장이 우리 나라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상사(上士)*는 중국에는 이학(理學)이 없다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중국에는 배울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큰 천하에 무엇인들 없겠는가? 내가 지나가 본 곳은 중국의 한 모퉁이인 유주(幽州), 연주(燕州)이고, 만난 사람도 문인 몇 사람일 뿐이니 도(道)를 물려받은 큰 선비는 실상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못했고 천하의 지역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는 뛰어난 학자들과 걸출한 문인들이 있는데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학문과 문학을 볼 것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얼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대저 서적에 기재된 것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의미가 무궁하다. 그런 까닭에 중국 서적을 읽지 않는 자는 스스로 금을 긋는 것이고, 중국을 다 오랑캐라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 비록 육상산이나 왕양명 같은 사람들의 학설이 있다고 해도 주자학의 적통(嫡統)은 제대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의 사람마다 주자의 학설을 말할 뿐이며 나라 안에 이단이 없으므로 사대부는 감히 육상산이나 왕양명의 학설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도가 하나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는가? 과거(科擧)로 몰아대고 풍기(風氣)로 구속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손마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이 중국의 큰 규모와 같게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무릇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예를 다 발휘해도 중국의 물건 하나에 불과할 터이니 서로 비교하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알지 못함이 심한 자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 나면서,

“그대는 중국 비단을 못 보았나? 꽃과 새, 용 따위의 무늬가 번쩍번쩍하여 살아 있는 듯하며, 가까이 보면 기빠하는 듯, 슬퍼하는 듯, 모습이 금세 달라진다.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직조 기술이 과연 여기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 하는바, 우리 나라의 면포가 날과 씨만으로 짜여 있는 것과 어떠한가? 중국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은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며, 짙은 금빛과 채색 단장으로 꾸몄고, 통행하는 것은 수레이고,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뿐이다. 그 도읍, 성곽, 음악의 변화함이며, 무지개다리, 푸른 숲 속에 은은하게 오가는 풍경은 완전히 그림과 같다. 부인네 머리 모습과 긴 저고리는 모두 옛날 제도 그대로이며 멀리서 바라보면 몸매가 날씬하여 우리 나라 부인네의 짧은 저고리와 폭넓은 치마가 아직도 몽고 제도를 이어받은 것과 같지 않다.”

하였더니 모두 허황하게 여겨 믿지 않았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아주 다르다는 듯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면서, “호국(胡國)을 우단(右袒)**한다.”라는 것이었다.

아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유도(儒道)를 밝히고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 나라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자는 “의리를 아는 사람이 많기를 원할 뿐이다.” 하였는데, 그러므로 나도 이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제가, 북학의 -

*하사·중사·상사: 선비를 상·중·하로 나누어 표현한 것.

**우단: 한쪽 편을 들.

3.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윗글의 필자에게 충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 우리는 위인들이 남긴 업적을 숭배하고 따르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우리 행동의 모범으로 미화하게 되어, 주체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위인이 위인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갈등과 역경을 극복한 과정이 비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인의 삶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권위에 도전했는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배워야 한다.

- ① 중국을 따르는 일이 역사적 과제임을 깨닫고 중국을 따르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 ② 중국을 배운다면 문물이나 제도를 배우기보다 중국이 스스로 변혁해 온 경로와 그 의지를 배워야 한다.
- ③ 중국에도 결함이 있으므로 중국의 문물을 따를 때에는 장점만을 선택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 ④ 중국 문물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⑤ 중국은 하나의 참조 대상일 뿐이므로,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장점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 <보기>부터 보시죠. 그리고 보기의 핵심은 “우리가 위인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은 위인의 역경과 갈등 극복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밑글의 필자는 중국의 현재 모습만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즉, 위인을 통해 중국을 유추해보면요, 결국 “중국의 현 문물과 제도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역경과 갈등을 극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08 6월 모평)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데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즉, 예술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비합리적 활동, 심지어는 광기 어린 활동으로 ㉡ 여겨지곤 했다. 그렇지만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입장도 유구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를 들 수 있다.

톨스토이의 견해에 ㉢ 따르면, 생각이 타인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듯이 감정도 그러하다. 이때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예술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고픈 감정을 떠올린 후, 작품을 통해 타인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그런데 이때 ㉣ 전달되는 감정은 질이 좋아야 하며, 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연대감이나 형제애가 그러한 감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톨스토이는 노동요나 민담 등을 높이 평가하였고, 교태 어린 리스트의 음악이나 허무적인 보들레르의 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좋은 감정이 잘 표현된 한 편의 예술이 전 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세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콜링우드는 톨스토이와 생각이 달랐다. 콜링우드는 연대감이나 형제애를 사회에 전달하는 예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체주의적 대규모 집회에서 드러나듯 예술적 효과를 통한 연대감의 전달은 때론 비합리적 선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 낳는다. 톨스토이 식으로 예술과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앞서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콜링우드는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관심을 ㉥ 둔다.

콜링우드에 따르면, 언어가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인듯이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다. 일상사에서 벌컥 화를 내거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듯하여 썩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분노나 슬픔은 공책을 펴 놓고 논리적으로 곰곰이 추론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염주 알처럼 진행되지만, 감정은 불쑥 솟구쳐 오르거나 안개처럼 스멀스멀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그와 생김새가 유사한 예술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토벤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곡절을 「운명」 교향악을 통해 때론 용솟음치며 때론 진저리치며 굽이굽이 정리했듯이, 우리는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었으면 굳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예술은 그 소임을 충분히 완성한 것이다.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나지만, 양자 모두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였으며, 이들의 이론은 특히 질풍처럼 몰아치고 노도처럼 격동했던 낭만주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4.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음악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독립적인 음들 및 그것들의 형식적 연관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곧 음악적 아름다움이다. 매력 넘치는 소리들의 연관, 그 연관의 조화와 대립, 이탈과 도달, 상승과 소멸 등이야말로 우리 앞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타나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 ① 예술의 본질은 감정보다는 형식이다. 우리에게 미적 즐거움을 주는 원천은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이지 않은가.
- ②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감정의 전달 수단인 형식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선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 ③ 예술은 감정이 아닌 절대적 이념의 표현이다.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예술이 지닌 숭고한 정신적 이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 ④ 용솨음치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감정이 정형화된 형식을 넘어 예술을 통해 자유로이 분출됨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 ⑤ 예술의 핵심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인간 삶의 형식을 묘사하는 일이다. 그러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4번 문제 : <보기>의 핵심은 “음악의 아름다움의 형식이다.”입니다. 이번에는 <보기> 앞에서 핵심 주장이 나왔군요. 여기에 내용은 ‘절대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에 나옵니다. 반면 위 글은 예술과 감정의 연관성입니다. 자, 감정은 내용의 측면이니, <보기>는 이렇게 비판하겠죠? “야, 니들 감정 중요시 하면 안 돼. 형식만 챙겨!”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